

북한 개발 소식

01

2019 January

통권 159호

| 이달의 주제 |

2019년, 통일 목화를 시작하자



한국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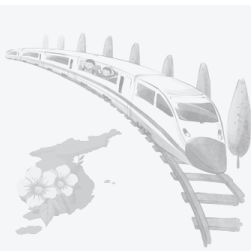
북한 개발소식

2019 January

CONTENTS

이달의 주제 :

2019년, 통일 목회를 시작하자



01

권두칼럼
2019년, 통일 목회를
시작하자

07

칼럼 1 · 하광민
새해 통일목회를
시작합니다.



12

칼럼 2 · Dr. One. K
변화된 한반도
상황에서의
목회 패러다임 전환:
통일목회

18

칼럼 3 · 정종기
통일목회가
무엇인가?



25

탈북민 수기 · 드보라
나의 출애굽기(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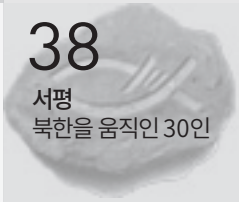
32

북한소식



38

서평
북한을 움직인 30인



40

기도제목



2019년, 통일 목회를 시작하자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2018년 한 해 동안 있었던 남북관계가 극적으로 변화했다. 군사적인 대립이 극적으로 감소하고 평화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호불호와는 별개로 남한 사회 전반에 북한과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직은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고 통일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기에는 무리지만, 남북 정상에 만나 남북 교류 협력 방안이 논의가 되고 철도를 비롯한 교통망부터 시작해서 남과 북의 왕래와 교류, 비즈니스 협력 등이 예상되면서 관련 기업의 주식이 상승하는 등 이미 남한 사회는 더 가까워진 북한에 대한 기대와 준비에 여념이 없다. 북한이 핵을 확실하게 포기하고 남북 교류와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통일도 마냥 먼 미래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 통일에 대한 정의를 단순히 남과 북의 정치적인 통합으로 보지 않고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하나된 이웃으로, 한 공동체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으로 본다면 통일의 과정은 이미 시작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우리는 통일 시대의

초입에 살고 있는 것이다.

북한과의 교류의 문이 열리고 더 많은 북한 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다는 것은 교회 입장에서 큰 기회이며 도전이다. 철저하게 닫혀진 장막 뒤에 복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북한의 영혼들을 만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교회에서 남한 출신 성도와 북한 출신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일이 전혀 특별하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이미 3만명 넘게 남한으로 들어온 탈북자들이 교회를 찾고 있다. 통일 목회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통일 목회는 근래에 새롭게 부상한, 아직은 생소한 개념이다. 기존의 북한 선교와 통일 운동에 힘쓰던 교회와 사역자들의 경험을 통해 앞으로의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통일 체질로 변화해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 제시된 개념이다. 교회가 통일의 비전을 가지고 북한의 영혼들을 향해 선교적인

발걸음을 내딛는 것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남한 사람의 교회가 아닌 한민족이 하나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 전 교회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통일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통일이 되면 무언가를 하겠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다가오고 있는 통일을 인식하고, 살아내고, 이뤄가는 교회가 되는 것을 뜻한다.

통일 목회라는 개념이 어렵다면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 교회의 상황이 어떨지를 생각해 보자. 반세기동안 다른 체제, 다른 생각, 다른 문화 속에 살던 사람들 수천만이 이제는 함께할 이웃이 되고 교회의 주요한 목양의 대상이 될 것이다. 우리 교회가 현 상태로 이들을 잘 수용할 수 있을까?, 성도들 간에 진실한 환영과 교제가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교회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남과 북의 성도가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시험에 들거나 분열과 반목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특정 부류가 잘못해서라기 보다는 말만 비슷할 뿐 전혀 다른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지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겪는 불협화음이다. 그렇지만 교회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충격과 혼란에 빠질 수 있다.

통일은 교회에게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요구한다. 이는 일반적인 선교사역과는 또 다른 문제이다. 선교는 비록 교회 전체적으로

헌신되어 해야 할 사명이지만 특별히 선발된 선교헌신자들을 중심으로 원거리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에 노출되고 또 그들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통일은 다르다. 한 두 사역자가 아닌 교회 전체가 다가오는 변화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될 것이다. 교회가 지금부터 통일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이유, 통일 목회를 지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회의 체질 변화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점은 바로 목회자의 의식이다. 현재 목회자들의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의식은 어떠할까? 목회자들의 통일의식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목회자들은 북한 문제와 통일에 대해 일반인들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자 300명과 일반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목회자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¹ 교회의 통일 준비가 필요하다는 항목에 목회자의 81.7%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교회가 통일 준비를 위해 기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항목에 목회자 74%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또 ‘통일세를 납부할 용의가 있다.’는 항목에 목회자 6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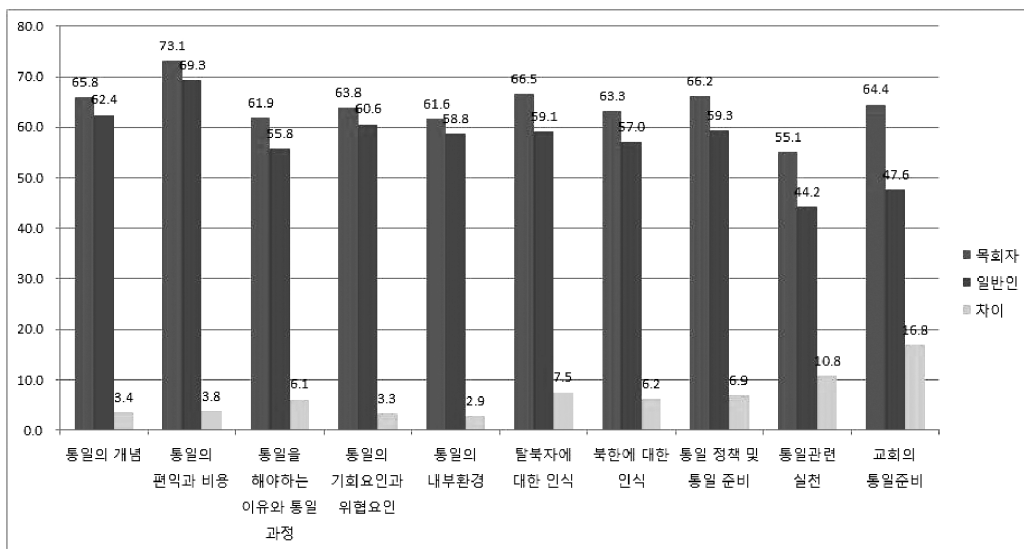
1 이장로 외, "한국교회 목회자 통일인식조사 보고서" (서울: 한반도 평화연구원, 2016.)

‘통일 관련 설교가 필요하다.’는 항목에 목회자 74.7%가 ‘그렇다’로 응답했고, ‘교회 내 통일 관련 세미나, 강연이 필요하다.’는 항목에 72.3%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교회 내에 통일 관련 기도회가 필요하다.’는 항목에는 7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교회가 중국 등 접경지역에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해야 한다.’는 항목에 73.3%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통일 이후에 탈북자들이 북한선교를 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는 항목에 80%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북한선교를 위해서 북한사회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는 항목에 82.7%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또 ‘탈북자들을 북한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탈북자들에 대한

교육 및 장학 사업을 확대 해야 한다.’는 항목에 7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교회 차원의 통일 준비와 함께 구체적인 기금 준비 및 통일세 납부, 북한 선교 및 탈북자 사역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목회자들이 통일에 대한 평균 이상의 의식 수준을 보인다는 것은 교회의 통일 준비에 있어서 긍정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목회자들의 의식이 일반 성도들에게는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 기독교인 721명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조사에서는 대상자의 71.8%는 통일에 대해 별로 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응답했다.² 목회자들과의 응답과는



<목회자와 일반인의 통일 인식 차이 (KPI)>

2 이현우, “통일에 관한 기독교인의 의식과 통일교육의 실태조사”(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17년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정반대의 수치이다. 연령대 별로는 50대 이상은 78.4%가 통일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40대 23.6%, 30대는 19%, 20대 7.7%로 저연령일수록 급속도로 관심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교회가 성도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일 목회가 필요한 이유이다.

그렇다면 통일 목회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전문가들과 실제 사역 현장에서 들려오는 조언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북한의 영혼들에 대해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라는 것이다. 현재 성공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 한 두 사람의 기도를 시작으로 북한과 통일에 대한 비전을 키운 곳들이 많다. 처음에는 목회자의 결단을 통해 교회 내에 적은 모임이라도 기도회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다.

성도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다면 더욱 긍정적이다.

그렇지만 성도들을 자발적으로 북한과 통일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아직은 '북한', '통일' 이런 단어가 생소하게만 느껴지기 때문이다. 성도들의 북한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고취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평소에 목회자가 관련 주제로 메시지를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전문 기독 사역자들을 초청하여 함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교회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몇몇 관심있는 성도들이 생기고 작게나마 교회 내에 북한의 영혼들과 통일에 대한 소망이 싹트고 있다면 교회 내에서 '선교학교'를 열어 짧게나마 북한 선교와 통일에 대해 깊이 있는 배움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교회에서 자체적인 구성과 방향 설정이 어렵다면 외부의 전문 단체들의 안을 참고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본 선교회에서도 매년 '북한선교학교'를 개최하여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서부터 구체적인 사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문 사역자들의 메시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열정있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참여하고 이후 교회에 접목한다면



<2017 오픈도어 북한선교학교 강의 모습>

좀 더 효과적으로 통일 목회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선교 참여는 자연스러운 통일 목회의 방향이다. 교회 내에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때 이를 단순한 호기심에서 그치게 하면 안될 것이다. 북한의 실태와 변화에 대한 관심과 북한의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실제적인 선교 사역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록 북한은 철저하게 복음 전파가 제한되어있는 곳이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은밀하게 북한 선교를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본 선교회를 비롯한 여러 전문 단체들이 있다. 비록 북한 선교의 특성상 대부분의 선교 사역이 은밀하고 비밀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에 직접 참여는 어렵겠지만, 이러한 전문 선교단체의 사역을 후원하고 주기적으로 교류하면서 선교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북한의 영혼들을 섬기는 구체적인 방안이다. 인도적 지원 사역 역시 중요한 북한 선교의 방법이다. 남한에 비해 열악한 의료, 보건, 영양 사정에 있는 북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 사람들과 정식으로 접촉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일선 교회에서 통일 목회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계기는 북한 출신 새신자와 성도들이 소수나마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다. 북한의 영혼들이라고 하면 아직은 만날 수 없는 멀기만 한 존재로 생각되지만 이미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북한의 주민들, 탈북민들이 있다. 우리에게는 낯선 북한의 체제와

문화에 익숙한 탈북민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한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경험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 올 통일시대 교회란 어떠해야 하는지 미리 체험할 수 있다. 추상적인 이상을 넘어 실제로 북한의 영혼들과 동일한 또는 비슷한 사람들과 부대끼는 경험은 교회에게 큰 자극을 줄 수 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민족이라고 하지만 북한의 영혼들이 남한과 얼마나 다른지 피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 남과 북을 복음으로 이을 다리가 될 탈북민 사역자와 성도를 길러내는 것은 그 자체로 훌륭한 통일선교이다. 지금은 비록 늦게 흘러들어와서 연고 없는 땅에서 부대끼는 이방인과 같은 신세일 지 모르나 이들 한 두 사람이 제대로 세워졌을 때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은 어마어마 하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에서 탈북민 출신 성도들이 방치되고 있다. 이분들을 섬기고 양육함에 있어서 보통의 남한 사람에 비해 더 많은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이기도 하고 어떻게 이분들에게 접근하고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교회에서 이러한 현실을 자각하고 사역을 진행하고 부서를 운영해야 한다. 즉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실패와 어려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꾸준히 지원하고 전문 사역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 목회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특별한

도전이다. 통일 목회에 참여할 때 이 사역이 단순히 북한과 통일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는 것을 넘어서 살아있는 복음의 본질을 확인하는 일임을 알 수 있다. 초기 탈북민들을 섬기고 교회에서 양육하려고 시도했던 교회들 중 상당수가 제대로 사역을 이어가지 못했다.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들의 재정지원이나 도움은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느낀 위화감과 이방인의 느낌을 감당하기 힘들었다고 한다. 특히 안타까운 케이스들은 교회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하는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을때이다. 현장에서 만난 선교사님들은 매우 헌신적이고 사랑이 많은 분이었고 그 사랑에 감격받고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드리고 한국에서 좋은 교회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기를 사모했지만, 정작 한국에 와서는 교회로부터 실망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선교사님과 같은 복음의 사람, 복음에 헌신된 교회를 찾기 어려웠다는 이들의 지적을 우리는 귀기울여야 한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통일 목회란 불필요한 일일 수 있다. 가서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접근하기 어려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북한선교 사역이나, 교회에 물질적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일반 남한 성도보다 더 애써서 돌보고 양육해야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탈북민 사역은 누군가의 눈에는 비효율적인 사역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우리 교회에 살아 숨쉬고 있는지,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가에 대해 실제적인 도전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목회자들은 통일 목회를 준비함에 있어 신학적인, 성경적인 관점에서 확실한 목회관을 세우는 일이 필수적이다. 인간적인 동정이나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통일을 소화하고 그것을 메세지로 드러내는 인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 목회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교회의 영성을 회복하는 부흥의 계기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통일 목회에서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다. 북한 선교에서 통일 선교, 통일 목회로 이어지는 흐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 이전에는 몇몇 헌신자들에 국한되었던 선교 사역에서 이제는 전 교회적으로 붙잡아야 할 사명임을 점차 깨닫게 된 것이다. 북한과 통일은 남한 교회 전체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책임이다. 그렇지만 단지 힘들고 무거운 짐만은 아니다. 통일 목회를 시작한 교회들에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감동에 대한 교회적 간증들이 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처음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작은 일부터 조금씩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대적 부르심에 응답하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을 줄 믿는다. 

새해, 통일목회를 시작합시다.

하 광 민 (생명나래교회 담임)

2018년 벽두에 시작된 한반도 해빙 무드는 한 해 동안 많은 변화들을 이루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한반도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예측하기 보다는 소망으로 시작해 본다. “한반도의 2019년도는 평화의 결정적 때가 되게 하옵소서”

평화의 결정적 때라는 것은 향후 통일을 재촉하는 전환점을 말하는 것이다.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를 담으려면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이 절대적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교회가 품고 있는 복음만이 그 해답이다. 그 해답을 풀어내는 개념이 바로 통일목회이다. 이 글을 통해 통일목회에 대해서 알아보길 원한다.

통일목회를 논하기 전에 우선 몇 가지 개념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북한선교와 통일선교에 관한 정리이다.

1) 북한선교란 무엇인가?

북한선교라는 용어는 한국교회가 가장 흔하게 사용해 온 개념이다. 이 용어가 사용된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북한이 선교의 대상이 된 이후부터일 테니 한국전쟁 이후에 사용되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이 선교지가 되었다는 것은 북한을 바라보는 주체가 같은 북한고향에서 내려온 실향민이 아닌 경우 이거나, 실향민이라 해도 타문화권으로 인식해서 선교지로 보게 될 정도로 오랜 세월이 지났거나, 아니면 남한과는 전혀 다른 체제이기 때문에 선교라는 말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위의 글을 다시 정리해보면 북한선교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들이 필요

	1950~60년대	1970~80년대	1990년대	2000~2010년대
선교의 주체	실향민	실향민, 남한성도	남한성도	남한성도, 탈북민
선교의 대상	고향	북한, 공산체제	북한	북한, 고향
문화권 인식여부	동일문화권	동일문화권	동질문화권	타문화권, 동일문화권
중심 주제	북한교회 회복	북한교회 재건	복음전파	하나님나라

하다. 그것은 선교의 주체가 누구인가? 선교의 대상은 또한 누구인가? 이 선교에는 문화권의 인식이 들어가 있는가? 선교의 중심주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분단 이후 지금까지의 인식을 위의 표로 정리할 수 있다.

위의 글을 풀어 써 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 선교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70년대였다는 것은 그 이전 시기, 즉 50-60년대에는 북한을 선교의 대상지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는 실향민들에게는 금방 돌아갈 고향으로 여겨졌고, 남한 성도들에게도 조만간 회복될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여 년이 지나면서 남북의 체제가 서로 공고해지기 시작하고, 한국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서자 북한을 공산체제에 신음하는 곳으로 보기 시작했고, 그곳을 선교지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그로 인해 70년대부터 90년 중반까지 북한선교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어지면서 북한은 선교의 대상지로 변하였다. 북한선교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을 대상화하여 공산정권 하에 있는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된 것이다. 이를 위해 방송선교, 성경배달사역, 지하교회 사역 등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북한선교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북한을 대상화하여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는 한국교회, 한인교회, 세계교회의 선교적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2) 통일선교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통일선교는 어떤 의미일까?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없으나 통일선교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지기 시작한 것은 90년 대 후반 2000년 대 초반이다. 북한선교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지던 한국교회에서 통일선교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하나는 통일을 선교와 함께 연결 지었다는 의미이다. 통일이라는 과제가 선교적 과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 통일이 사람을 매개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90년대 후반부터 탈북민들이 북한을 넘어서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탈북민의 존재는 한국교회에 통일의 가능성과 통합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이전까지는 불가능해 보였던 통일이 남북한의 사람의 만남으로 작은 형태의 통일을 이루게 됨으로써 대상으로서의 북한선교가 함게 함으로써의 통일선교로 변모하게 되었다.

또한 남북한 사람의 만남은 북한을 대상화하여 복음전파를 하던 중요성에서 남북한 사람의 통합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한편으로는 얼마나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사건이었다. 탈북민이 한국에 들어와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을 보면 남한 내에 살지만 여전히 계도화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그 동안의 대상화되어 있는 북한선교를 넘어 남과 북의 진정한 통일이 있어야 진정한 복음 즉 용서와 화해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다. 다시 말해 북한선교는 개인구원과 북한복음화라는 대명제에서 시작하지만 정작 전쟁을 치른 남과 북의 용서와 대 화합은 북한복음화의 문제를 넘어서는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남한도 더 용서하고 화해하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일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 과정이 바로 통일의 과정인데 통일은 반드시 남과 북의 화해와 용서로 이루어지는 평화통일이다. 이것은 개인 구원을 넘어서는 복음이며, 하나님과 화목

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더 큰 복음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통일선교란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용서하고 화해하며, 개인적 구원과 민족적 구원을 이루는 한국교회와 한인교회의 선교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한반도의 민족적 과제이기에 세계교회가 우선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동북아의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평화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세계교회 역시 통일선교에 간접적으로 참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통일선교의 정의를 위와 같이 내린다면 통일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용서와 화해일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통일목회의 출발점이 생겨난다.

통일목회도 통일선교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중심으로 한 용서와 화해의 추구이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사변적 용서와 화해가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을 둔다는 의미이다. 여기에서 사람이란 북한 주민을 말하며 더 구체적으로는 우선 이 땅에 와 있는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3) 통일목회의 기원

통일목회는 통일선교의 개념이 등장한 후 한국교회에 새롭게 나타난 용어이다. 그러나 통일목회의 개념이 남북 사람 중심의 목회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바로 그 점에서 통일목회의 기원은 분단 직후부터 이 땅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통일 목회의 발전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분단 직후 남한으로 대거 내려온 실향민중심으로 통일목회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통일목회의 개념이 성립된 것은 아니었고 단지 이북출신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지만 그들의 존재는 한국교회로 하여금 북한선교에 대한 끊임없는 자각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 당시의 통일목회는 그런 점에서 북한선교를 감당하게 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한국의 충현교회, 영락교회 등 북한선교에 앞장섰던 교회는 대부분 이북출신의 교회였다.

그러나 실향민들은 차츰 남한에 정착하고 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북에서 남으로 옮겨 가기 시작했다. 이 과정은 수 십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사람중심의 통일 목회가 성립되기는 어려웠다.

두 번째 시기는 90년 후반부터 남한으로 넘어오기 시작한 탈북민들의 등장 때부터 이다. 그 동안 북한에서 오는 주민들은 실향민 외에 몇몇 귀순용사 밖에는 없었던 시절에

탈북민들의 대거 등장은 분단 후 처음으로 한국교회가 자국 땅에서 북한주민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것은 그 동안 선교의 영역에 머물던 북한이라는 주제가 목회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향후 2,500만의 북한주민을 교회가 맞이하고 다가가야 하는 목회로 준비해야 한다는 평범하지만 잊어버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준 사건이다.

이로부터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통일목회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는 남북 분단 직후에 있었던 통일목회의 맥을 계승하면서 발전시킨 개념이다.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목회한다는 점에서 계승이지만 통일을 준비하는 목회라는 차원에서는 당시 목회보다는 발전한 개념이다. 당시에는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라는 개념은 없었고 단지 고향출신들의 교회공동체 개념이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를 통해서 많은 탈북민 출신의 목회자들과 남한 출신의 목회자들이 남과 북의 성도들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통일목회를 추구하고 있다.

세 번째 시기는 아직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시기를 언급하고 싶다. 그것은 앞으로 한국교회들의 통일목회 시기이다. 2000대년부터 일부의 통일목회자들이 실험적 수준에서 시작한 남북의 통일목회 공동체들이 의미있는 성장을 해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반도 전역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2500만의 북한주민을 맞을 준비를 하려면 한국교회가 통일목회의 개념을

이해하고 지금부터 준비할 때이다.

4) 통일목회의 정의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논의한 것들을 정리해서 통일목회를 정의한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첫째로, 통일목회란 남북의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용서와 화해의 목회이다. 한국전쟁 이후에 이념의 대립으로 갈라진 남북이 화해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복음으로 서로 세워지는 사람 간에 일어나는 것이다.

둘째로, 통일목회란 용서와 화해의 실천은 그리스도의 복음공동체인 교회의 필수 사명인 것을 깨달아 그것을 교회목회적으로 실천하려는 목회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성경적 기반을 갖고 있다.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존재적으로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을 사명으로 받은 자들이다. 그런 자들의 모임이 교회이므로 이 시대에 교회만이 용서와 화해를 실천할 수 있는 이론적, 실천적 기반을 갖고 있다.

셋째로, 통일목회란 남과 북의 사람들이 모일 때 생기는 차이를 복음 공동체인 교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목회이다. 복음은 문화적 수용성을 가지고 있다. 초기 안디옥교회의 문화적 수용성은 복음이 가진 능력을 보여준다. 각 문화는 자문화의 특징이

배어있는 복음을 갖는다. 남한사람과 북한사람이 갖는 복음의 강조점이 다르고 그것이 표현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남한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 비전에 초점을 두지만 북한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에 더 큰 강조점을 둔다. 이 둘은 상호 보완이 가능한 것이다. 통일목회란 향후 통일과정에서 일어날 수많은 차이들을 복음 공동체인 교회는 다양하게 수용하고 통합 또는 융합된 통일한반도 복음문화로 바꾸어 가는 것을 말한다.

넷째로, 통일목회란 교회가 선교공동체임을 깨달아 북한주민을 넘어서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열방으로 나아가려는 목회이다. 선교적 공동체는 다양한 문화와 생각을 넘어서 수 있는데 왜냐하면 선교성을 가진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선교성을 지닌 공동체는 다양성을 선교적 에너지로 분출해낼 수 있다. 따라서 남북의 다른 문화권에서 발생하는 복음문화는 선교적 에너지로 분출되고 따라서 통일과정 가운데 통일목회가 잘 정착되면 통일한반도 교회는 다시금 선교적 부흥을 견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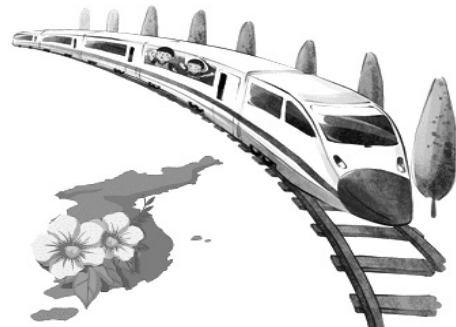
변화된 한반도 상황에서의 목회 패러다임 전환: 통일목회

Dr. one. k (통일 사역자)

2017년의 냉전 속에 있던 한반도의 정치 지형을 생각하면, 2018년의 정치지형은 거의 지각변동수준이다. 남북 정상회담의 세 차례 회동을 통해 결의된 내용만 열거해 봐도 엄청나다. 고위급·장성급 회담 개최,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 상봉,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 전환, 서해 NLL 평화수역 조성, 연내 종전선언·정전협정 후 평화협정 전환, 군사합의로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적대행위 일체 중지,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중 상호 1km 이내 근접초소 완전 철수,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남북유해발굴 및 역사유적 발굴,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평화 수역화, 군사적 대책에 대한 보장 등이다.

그 실효성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나타난 현상만 보면 남북통일은 턱 앞에 다가와

있다고 느끼게 한다. 이뿐만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만나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 전자자 유해(6,000여 구) 발굴, 판문점 선언 이행,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 등의 합의 모두가 한반도 통일을 위해 진전된 징조로 보여진다. 종전선언이나 정전협정,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협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어도 남북한의 정치환경이 급격히 변화되면서 통일을 향해 통신, 통관, 통상, 통행이 급진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1. 목회지형 변화의 첫 단추

변화된 한반도의 정치지형을 보면서 한국교회의 목회환경의 변화는 어떠한지, 무엇보다 현재의 목회 지경을 넓혀 한반도 통일을 위하여, 또한 한반도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을 통한 진정한 통일을 위하여 교회는 준비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안은 찾았는지, 선교 지경을 넓혀갈 비전은 있는지 물어보아야 할 때이다. 분명한 것은 정치 지형에 상관없이 한국교회는 한반도 분단의 아픔을 끌어안고 이를 극복하여 세계선교의 길을 열어갈 꿈의 한국(Vision Korea), 새로운 한국(New Korea), 위대한 한국(Great Korea)의 길을 복음 안에서 제시할 사명이 있다. 그 첫 단추는 우리 목회자 개인주의의 세속화를 벗어나, 한반도의 문제를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북한 동포들에게 선한 사마리인이 되는 통일목회를 실시하는 것이다.

2. 목회에 대한 문제의식

현재 탈북민 3만2천 명뿐만 아니라 향후 열 배도 넘는 탈북민이 이 땅에 정착할 상황이 곧 다가올지도 모른다. 이때를 대비해야 하는 목회자들은 무엇을 준비하며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만 할 것이다. 이때와 이런 상황에서의 목회를 어떤 목회라고 호칭해야 할 것인가? 탈북민 사역현장에서 ‘통일목회’라는 호칭이 나오기 시작했다.

통일목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절감한

목회자는 통일선교 현장 사역자들이다. 한반도 통일지형 변화의 틈을 열고 있는 탈북민 목회자들은 이 땅에 온 탈북민들을 이미 온 통일민으로 인식했고, 이들과 함께하며 북한선교와 한반도 복음화를 꿈꾸는 목회를 지향하면서 이러한 목회를 ‘통일선교목회’ 혹은 ‘통일목회’라고 호칭했다. 탈북민과 남한의 성도들이 어떻게 통합하고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통일목회’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한 것이다. 이후 통일목회 개념과 통일목회 확장을 위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아직은 보편적 목회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상당한 교회들이 통일선교의 개념을 넘어 통일목회로의 전환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다.

3. 한반도 복음화의 상황인식

한국교회의 목회 환경 속에서 북한선교나 통일선교는 특수목회의 영역으로 그 관심도나 우선순위에서 떨어져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급격히 변화되는 통일환경 속에서 세계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은 통일선교와 통일목회로의 전환이 한반도 복음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라는 상황인식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2017년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미국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에서 ‘세계 선교를 위한 통일 한국(Mission United Korea)’ 포럼이 열렸다. 이때 KWMA 사무총장 조용중 선교사는 한국 교단 선교회 및 선교

단체 50곳을 상대로 조사한 ‘2017 통일 준비 현황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50곳 중 72%에 달하는 36개 단체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전략이 없다고 답했다. 있다고 답한 단체 중 체계적인 통일 전략을 세운 곳은 많지 않았다. 통일 전략에 따른 조직이나 구조가 있느냐는 질문에 68%가 없다고 답했고, 통일 전략에 따른 예산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무려 84%가 없다고 대답했다. 선교연합 단체에서 한반도가 세계선교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로 통일선교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적극적인 노력을 시도한 것은 거의 드문 일이었다. 목회사역 현장뿐 아니라 선교사역의 현장 속에서도 한반도 통일선교에 적극적으로 함께해야 하는 당위성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이다.

4. 통일목회 환경변화와 참여

통일선교나, 통일목회에 대해 한국교회의 동참을 요구할 때 한국교회는 소극적이었다. 기독교적 통일개념이나 통일 전략, 통일 조직이나 통일 선교구조가 빈약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를 향해 통일선교나 목회를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무리한 일로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다양한 통일 사역 분야에 헌신하고 있는 통일사역자들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인지하고 통일개념과 전략 및 조직구조를 갖추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전보다는 훨씬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각 교단 안에서도 북한 사역 글로벌네트워크(GNN)를 조직하여, 통일 선교사역의 전문화 및 외연 확장을 시도하거나, 통일선교 대학, 통일선교학당, 통일선교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총회 남북위원회나 북한선교특별위원회가 조직되고, 통일선교 정책협의회가 구성되고 있다. 그리고 선교관계자들도 한국교단선교실무대표자모임(한교선) 주최로 “2018 통일선교 포럼”에서 각 교단(합동, 고신, 합신, 기감, 기침, 기성) 북한선교 관계자들이 나와서 교단 북한선교 현황에 대해 발표하며 통일선교의 방향과 내용을 서로 교류하며 연합을 시도하고 있고, 통일선교 학교들이 연합하여 통일선교 교육협의회가 조직되기도 했다.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중심으로 ‘한국교회 남북교류 협력단’이 발족되었고, 통일선교 단체 및 전문가, 개교회와 교단, 해외 선교 단체 및 전문가 간의 통일선교 방향성과 비전 공유, 통일선교 인프라 구축과 협력을 위한 선교통일한국 협의회도 조직되었다. 북한선교학과나 통일지도자 과정을 운영하는 기독교 대학과 신학교, 통일기도와 연합을 추구하는 통일선교 단체 등에서도 통일목회를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을 상당히 준비해 놓았다.

2018년의 이런 통일선교 환경의 변화는 남북정상과 북미정상이 만나 이루어낸 정치 지형의 변화에 버금가는 기독교 통일선교 지형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조금만 영적 관심을 기울여 살펴보면, 하나님은 한반도 통일의 길을 열어가기 위하여 귀한 통일선교 청지기들과 헌신자들을 곳곳에 세우시고 계심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각 영역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이 일을 위한 연합과 협력적 관계를 이루어 가고 있다.

통일목회의 환경은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고 목회자들이 뜻만 정하면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져 있다. 이제 2019년은 한국 교회사에 목회자들이 한반도 통일을 품고 적극적으로 통일목회를 향해 목회지형을 확장 변화시킨 해로 기록되기를 기대한다.

5. 통일목회 마인드(mind)

통일 목회는 한반도 민족 복음화에 대한 비전만 있으면 얼마든지 실시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자신의 동족을 품은 세계 선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통일목회 사역의 본을 보여주었다. 그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여는 사역자가 되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통일을 이루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전12:13)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신의 선교와 목회영역을 규정하고 있지만 단지 이방인만을

위한 전도자로 살지 않았다. 그의 가슴에는 자기 동족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믿음 안에서 분리시켜 목양하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목회와 목양을 하나님 나라 가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실시하였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지혜자와 야만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스스로 낮아져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했다.

통일 목회가 이루어지려면 통일 목회의 대상이 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를 위해 자기를 버리고 그들 아래로 들어가 그들을 수용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고전9:20)

바울은 결코 자기 민족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방인 사도로서의 이방인 선교비전 여하와 상관없이 자기 동족인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고난이나 핍박도 감내 하였다. 그는 동족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다. 남한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남한사람과 각 교회의 비전에 따라 세계선교만 감당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동족인 북한 동포들을

목회와 선교사역에서 제외한다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 목회를 외면하는 것이다. 바울은 자신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자신의 동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롬9:1~2)

자기 민족을 포기하지 않는 바울의 진정성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 전도하는 모습에서 확실하게 드러난다. 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이때 유대인 회당에 찾아간 것은 유대인을 위해 목숨까지라도 내어 줄 순교적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유대인을 자신의 목회에서 포기할 수 없는 바울은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을 선교하면서도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며 매를 맞기도 했다. 자신에게 로마시민권이 있다는 사실만 말했어도 그는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감한 매를 그렇게 계속 맞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유대인으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시민권을 내밀지 않고 그

모진 매를 감내하며 다섯 번이나 맞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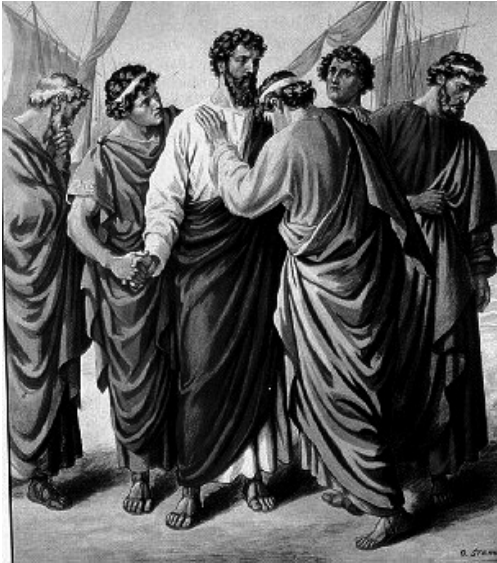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고후 11:24)

이런 핍박을 받았으면서도 유대인들이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안 이후에는 이들을 돕기 위해 이방인들에게 지원금을 받아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유대 땅 예루살렘을 향해 찾아갔다. 이들의 구원을 예수님께 받은 사명으로 인정하며 자산의 생명조차 귀히 여기지 않은 것이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 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20:22~24)

북한선교는 적어도 남한의 목회자들에게 특수 선교영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동족을 향한 바울의 선교와 목회 열정을 본받아 우리도 그들을 품는 목회를 해야만 한다. 통일목회는 사도바울을 본받고 그의 영성을 따라 사역할 때 이루어지는 목회이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통일 한반도를



< 형제 자매들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바울 (삽화).
고난에 대한 예언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목회영역으로 여기며 사역하는 통일목회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그 마음으로 목회하는 통일 목회란 삼위일체 하나님을 교회를 통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사역이며, 성령의 역사로 성취되는 복음 통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통일 한반도 목양 사역이다. 통일 목회는 남북한 통일 이전이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목회이다. 한국 교회는 교회 갈등과 교단분열, 교파분열 등을 통해 이 땅에 교회의 일치성보다는 ‘분열’이라는 이미지를 드러내어 선교에 큰 장애를 입히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안고 있는 교회가 이제는 교회 본질로 돌아가서 민족통일의 선봉에 서 있어야 한다. 교회는 화해와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과 일치를 지향하는

공동체이다. 우리 민족을 어둠으로 몰아넣는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어 주실 분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통일목회의 비전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비전이고 복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비전이다. 이런 확신이 성령 안에서 비전으로 주어질 때 통일 목회가 시작된다.

통일목회는 복음을 내재화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역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복음 목회이다. 복음으로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통일을 받을 그릇이 되었을 때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로의 통합을 통해 분단된 민족이 하나가 되는 통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통일목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에 순응하는 목회이고 한반도 통일의 길을 열어가는 목회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 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에베소서 1:10,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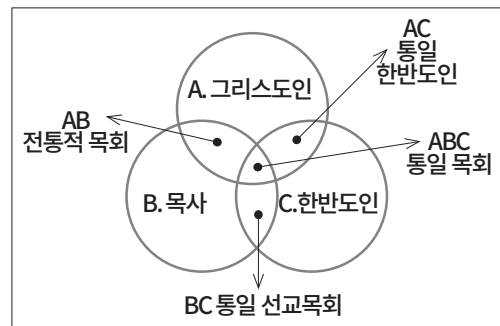
통일목회가 무엇인가?

정 종 기 (한선통일목회연구소 부소장, 영신교회 담임)

한국교회는 민족을 품고 땅 끝까지 선교하는 목회의 패러다임으로 변화를 줄 때가 바로 지금이다. 한국교회는 새롭게 세운 목회계획을 따라 2019년을 시작하고 있다. 목회계획은 항상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계획한 2019년의 방향은 어디인지 묻고 싶다. 교회성장인가 아니면 땅 끝 선교인가? 어느 것이든 개 교회가 꼭 해야 할 것이기에 그렇게 정했으리라 생각한다.

한국교회 목회자의 정체성

여기서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여러분들이 목회하는 곳이 어디인가? 미국인가 아니면 한반도인가? 만약 한반도라고 답을 한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한반도에서 목회하게 하셨는가?”에 관한 질문에 답을 해 보시기를 바란다.



한국교회의 목회자는 세 영역에 살고 있다. A영역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영역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선교에 대한 명령을 받았다. 이런 선교명령에 빛지고 살아가고 있다. B영역은 소명받은 목회자의 영역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 C영역은 한반도의 영역으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교회 목회자는 세 가지 영역에 다 걸쳐있다. AB영역은 목회의

영역이고, BC의 영역은 목사로서 북한사역을 하는 이들로 특수사역을 하는 이들의 영역이다. AC는 한반도에 사는 그리스도인을 뜻한다. 그렇다면 목회자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주가 주신 선교의 사명을 다한다. 하지만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한반도에 세워진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여 한반도에 대한 책임을 미루고 말았다. 한반도에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우리가 복음을 받기 위해 선교사를 받아 들였지만 지금은 남한에 약 6만개의 교회가 세워짐으로 우리 스스로 북한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동족을 향한 복음전파는 뒤로 하고, 땅 끝선교한다. 하나님은 한반도 복음화는 한반도에서 목회하는 우리에게 맡기셨다. 한국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C영역에 살면서 AB의 목회만 하고 있다. 이제 한반도를 품고 땅 끝까지 목회를 해야 할 때가 바로 오늘이다.

한국교회 목회 패러다임의 변화

한국교회는 목회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기가 왔다. 한반도의 상황이 이전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제는 더 이상 반공의 패러다임의 목회도 아니고, 나아가 진보와 보수의 대결의 장이 교회가 될 수도 없다. 또한 한반도의 변화된 상황에서 이제는 남한만 바라 볼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바라보아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예수님 역시 목회 패러다임을 바꾸신 분이다. 예수님 시대의 목회패러다임은 ‘율법목회’이다. 예수님은 이런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목회패러다임을 제시하셨다. 이것은 사복음서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라’ ‘겉 옷을 달라는 이에게 속옷도 주라’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이를 위해 기도하라’ ‘일흔 번에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 나아가 율법목회와 가장 많이 부딪친 것은 안식일에 일하는 개념이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아버지가 일 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며 병자를 고치신 목회였다. 이것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목회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패러다임의 전환 이었다. 예수님의 목회 패러다임전환을 가장 잘 이해한 성경의 인물이 사도바울이다.

사도바울의 통일목회개념

개혁개정판 한글성경에 ‘통일’을 치면 두 군데 나온다. 이 단어는 사도바울만 사용하고 있다. 한곳은 엡1:10, 다른 한 곳은 엡4:6이다. 사도바울이 이해한 통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엡1:10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이고, 헬라어 원문을 보면 “εις οἰκονομίαν τοῦ πληρώματος τῶν καιρῶν, ἀνακεφαλαιώσασθαι τὰ πάντα ἐν τῷ

Χριστῷ, τὰ ἐπὶ τοῖς οὐρανοῖς καὶ τὰ ἐπὶ τῆς γῆς ἐν αὐτῷ”인데, 여기서 ‘통일’에 해당되는 단어는 ‘아나케팔라이오사스다이’ (ἀνακεφαλαιώσασθαι)이다. 이 단어는 ‘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단어는 명사 ‘케팔레’(κεφαλή)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지배하려 하심이라’는 의미라고 이해하기도 한다. 그것은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엡4:15)’(호스 에스틴 헤 켓팔레, 크리스토스 : ὅς ἐστιν ἡ κεφαλή, Χριστός)는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교회의 머리이며 그가 바로 근본 이시다(골1:18).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 밖에는 없기에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상태’라는 의미에서의 ‘통일을 시키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통일을 정의해보면 “통일은 다시 머리가 생긴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사도바울은 교회를 설명하면서 통일의 개념을 가지고 왔는데, 그가 말하는 통일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든 성도를 한 지체로 만드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교회는 곧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대로 ‘하나됨’의 결론이 된다. 그렇다면 사도바울의 목회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그가 말하고자하는 통일을 이루려는 목회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바울의 교회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세우는 것이었다.

사도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이방인의 사도로 소개한다(롬1:14, 갈2:8, 엡3:1). 그래서 우리가 익숙히 사도바울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이방인을 향한 선교사명으로만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이해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선교를 가르치고 이해할 때, 사도바울을 항상 땅 끝선교로서만 이해하고 동족을 향한 선교를 빼 놓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고전9:20). 그것은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고전9:22)”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행동한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으나 이방인과 유대인을 얻기 위하여 한 행동이었다.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유대인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밝혔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롬9:1-3)

이 말씀에 따르면 사도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은 형제였고, 골육의 친척이었다. 롬 9:1-3을 통해 바울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형제요, 골육의 친척이라고 밝혔다. 그는 형제들과 골육의 친척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큰 근심을 가졌고,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을 가졌다. 바울은 더 격한 표현을 본문에서 한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고 말하는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성취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음에 대해 비통을 너머 격분으로 나가 바울은 자신을 버리기까지 생각한 것이다. 본문의 ‘저주를 받는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배제되고 정죄의 형을 받은 사람을 가리킨다’(고전12:3, 16:22, 갈 1:8-9). 바울이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은 읽는 이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든다. 하지만 구약에서 이미 이런 모델을 알고 있는 바울로서는 충분히 그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바울은 자신의 구원보다는 형제들이 복음을 받아 들이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결국 사도바울의 로마서를 재해석 할 필요가 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과 함께 땅 끝까지 선교를 하기 원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귀므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 이라(롬15:23-25). 바울은 로마서9:-11:의 기록은 땅 끝까지 선교하기 위해서 그는 형제와 혈육을 품고 가야 함을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마음을 품은 사도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은 선교사로서 ‘적’이요 ‘원수’ 였다. 바울에게 있어서 선교사로서 당한 일을 보면 유대인은 결코 형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 들에게 사십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후11:23-27).

바울은 유대인으로부터 받은 고통과 고난을 사도행전에도 기록하고 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 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 가기로 작정하니(행20:3)



〈바울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심각한 핍박을 받았지만, 항상 자신의 동족을 위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 에베소를 거쳐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한 것을 볼 수 있다. 바울은 선교지에서 일어난 수많은 어려움과 죽음의 고통을 말하면서 특이하게도 ‘유대인에게서’라는 말과 ‘동족’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선교사로서의 수많은 어려움에서 동족으로부터 받은 고통은 잊기 어려운 고통이었기에 강조하며 쓴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더욱이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오라 한 후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았다고 하였다(행20:19).

유대인들은 바울과 그 일행이 가는 곳마다 괴롭혔다(행13:45, 14:2, 17:5, 17:13, 18:12) 또한 행19:9, 13, 33, 34을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 나타낸 적개심이 얼마나 혹독했는가를 알 수 있다. 심지어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성전에서 잡아 죽이려고 한 것까지 알고 있었다. 성경은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라고 말하고 있다. 사도행전 외에 다른 서신서를 보면 그가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많은 시련을 당했음을 알 수 있다(고전15:30-32, 16:6, 고후1:4-10, 11:23 등). 그렇다면 유대인은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돕는 동역자가 아닌 방해꾼이었고, 심지어 목숨을 위협하는 ‘적’이요 ‘원수’였다. 그는 유대인으로부터 39대의 매를 다섯 번이나 맞은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은 것과 같다. 하지만 그는 이런 매를 맞지 않아도 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매를 맞은 것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고전9:18).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시민권자이다. 동족들로부터 매를 맞을 이유가 없다. 정식재판을 하여 매를 피할 수 있었건만 그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포기하고 도리어 매를 선택한 이유는 동족을 향한 복음 때문이었다. 그가 항상 로마시민권자임을 숨긴 것은 아니었다. 3차 선교여행을 마친 후 예루살렘을 방문한다. 그가 그곳에서 유대인들에 의해 매를 맞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로마의 천부장이 그를 구출한다. 그리고 영내로 들어가 백부장에게 매를 맞고 고문 당하게 되었을 때,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힌다(행22:25). 바울이 로마시민권자임을 밝힐 때는 대상이 유대인이 아니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원수와 같은 존재였지만 그들을 향한

복음의 열정으로 ‘형제’요 ‘동족’이라 하였다.

사도바울의 소명

바울이 유대인을 향해 형제요 동족이라고 하며 그들을 향한 복음의 열정을 가진 이유는 예수님이 그를 부르신 소명에서 나타난다. 사도행전9:15절에는 장차 사울이 복음을 전하여야 할 대상들이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것은 주께서 이미 사울이라는 자를 택하여서 주의 사역을 할 자로 계획하신 것이다. 사도행전 9:15절을 보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행9:15)

이 말씀의 배경은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눈이 먼 사울을 위해 기도 하라는 명령 가운데 나타난 대화이다(행9:10-15).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도바울을 택한 이유에 대해 아나니아에게 설명하였는 데,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대상을 위해 선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사도바울은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그는 유대왕 아그립바와 로마 황제 가이사, 유대 총독인 벨릭스와 베스도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다.

그리고 동족인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행22:1-11, 롬9:3).

바울에게 주어진 이 소명은 아나니아에게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바울 역시 알고 있었다. 그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공격을 받고 로마 군인에 의해 가이사라에 갔을 때, 그는 아그립바 왕을 만나게 된다. 그곳에서 아그립바왕에게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그 앞에서 변명하게 되었을 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예수를 만나고 그가 주신 사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 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행26:16-18)

사도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실상은 동족을 향한 부르심도 함께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사도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서 연금상태가 되었다(행28:16). 바울은 연금된지 사흘 후에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복음을 전하였다(행 28:17). 이것은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동족사랑의 메시지이다. 그는 어떤 순간에도 동족을 향한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의 종말론은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그에게 있어서 새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된 예루살렘으로 보고 있다. 사도바울의 목회 패러다임을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는 ‘민족을 품고 세계를 품은 목회’였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기독교인은 단지 3만 5천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도 바울처럼 동족을 위한 복음의 열정을 가진 자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약 북한복음화를 위해 몇몇만 이해하고 대다수 한국교회가 멈추어 선다면 어느 순간 오늘의 이스라엘과 같이 북한 복음화는 물건너 갈 것이다.

결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이방인 선교의 궁극적 목적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롬11:13-14에서 이방인 전도의 동기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의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방인 선교를 수행해 나가는 바울의 궁극적 목적은 사59:20-21과 사27:9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런 사도바울의 소명의식을 바라 볼 때 한국교회의 목회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하는 것에는 분명한 당위성이 있다.

그 동안 우리가 해 왔던 목회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단지 한반도에서 사는 우리가 나의 동족 나의 형제를 위한 복음을 전하지는 않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했다는 것이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의 목회는 북한을 품고 땅 끝까지 나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통일목회이다. 통일목회는 남북의 정치적, 지리적, 법적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북한 교회의 회복으로 복음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나의 출애굽기 (11)

드보라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한국이 어떤지 눈으로 볼 기회가충분치 않았다. 그래서 최초의 한국 구경은 국정원에서 주관한 도시 체험이었다. 쉽게 말하면 서울 도시 투어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다. 우리가 조사받던 곳은 외진 시골이었기 때문에 차를 타고 나서는 길에 보이는 풍경은 남한의 농촌 모습이었다. 그런데 풍경은 시골인데 집들이 내가 아는 것과 모양이 많이 달랐다. 특히 굴뚝이 안보였다. 너무 궁금해서 안내해주는 선생님께 물었다.

“선생님 왜 집에 굴뚝이 없어요? 굴뚝도 없이 어떻게 밥을 해먹어요?”

내 질문을 들은 선생님은 웃으면서 여기서는 가스, 보일러로 요리도 하고 난방도 한다고 알려주셨다. 나무를 때서 밥을 해먹는 그런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농장도 깨끗하고 눈에 커다란 흰 덩어리가 있는데 무엇인가 물어봤더니 별단을 흰 비닐로 묶어놓은 것인데 나중에 소가



〈추수가 끝날 무렵 시골 마을에 보이는 흰색 덩어리는 '곤포 사일리지(Baling silage)'로 벼단을 단단히 말아놓은 것이다. 벼단은 공기와 차단된 상태에서 발효되어 수분과 섬유질이 풍부해져 소들이 쉽게 소화할 수 있는 훌륭한 사료가 된다.〉

먹는다고 했다. 너무 신기했다. 북에서는 비닐 방막도 없어서 고생했는데 별집을 비닐 방막으로 묶다니… 생각했던 것보다 남북의 생활 수준 차이가 커서 깜짝 놀랐다. 북에서는 자본주의는 악이며 썩어빠진 것이고 사회주의가 최고라고 배웠는데 이렇게 생활 수준 차이가 나다니… 나도 모르게 우와 라는 감탄사와 함께 “야

자본주의 만세다 만세” 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자본주의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그때는 잘 몰랐다.

하나원에서 나와서 배치받은 집에 드디어 들어갔다. 엘리베이터 달린 아파트에서 살다니 기적 같았다. 평생 상상하지 못했던 깨끗하고 시설 잘된 집에 들어가게 되니 내가 중국에서 십수년을 해매고 집을 떠나 고생했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성공했구나 하는 생각에 기분이 붕 뜬다.

정착도우미 선생님을 통해서 핸드폰을 개통했다. 개통하자마자 나는 중국에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중국에서는 나를 숨겨야 했고 누구한테 당당하게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말도 못했는데 이제는 중국 친구에게 내가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다. 중국 친구들은 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니 북한 사람이었나?” 하며 되물었다. 속이려고 했던건 아니지만 미안하다 하며 한국 오면 놀러오라고 했다.

들뜬 기분이 진정되니 가족 생각이 들었다. 북한에 있는 우리 애들, 우리 부모님... 아무리 힘들어도 데리고 왔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에 중국에 잠깐 나왔던 막내 동생을 통해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머니는 특히 관절이 좋지 않아서 힘들어하신다고 했다. 길거리를 다니며 휠체어나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어르신들을 보며

‘한국에서는 저렇게 좋은 길에서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고생하시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어머니도 빨리 치료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뿐이었다. 다행히 막내동생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들어갔으니 우리 가족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셈이다. 이 사실이 나에게 큰 격려가 되었다.

한국에 왔으니 교회를 맘껏 가고 싶었다. 몇몇 교회를 기웃거렸지만 영 마음을 붙이지 못하던 중에 중국에서 같이 성경공부하던 조선족 언니를 만나서 그 언니가 다니는 교회를 갔다. 주일 예배인데 찬송을 부르는데 그 가사가 마음에 너무 와 닿았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
처럼 흘러 내릴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악함을 사랑으로 인도
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찬양을 부르는데 도저히 의자에 앉아있을 수 없어서 바닥에 무릎꿇을 수밖에 없었다. 이어지는 찬양도 내 마음을 축축히 적셔주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이어서 교회에서는 주일예배 중간에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얼굴도 모르는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나는 마음이 뭉클했다. ‘아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바로 이 한국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덕분이거나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구나...’하는 감동이 있었다. 그렇게 교회에서 주일마다 평평우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교회 갈때는 나를 단정하게 차려 입고 화장도 하고 가는데 마스크라가 번져서 영망이 될 정도로 울었다. 난 독한 성격이었는데, 어릴 적부터 독한 년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눈물이 흘렀다. 아무리 단단하고 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남한에 오기 전에 걱정했던 것 중 하나는 혹시나 남한에 가서 타락하고 돈과 세상에 빠져 살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다. 그래서 중국에 있을 때부터 서원기도를 드렸다. 남한에 가면 세상에 빠져 살지 않고 평생 주님 일만 하게 해달라고 말이다. 서울 생활을 해 나가면서 남한을 잘 살게 해준 자본주의지만 그만큼 유흥과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나는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교회를 소개해준 조선족 언니는 나에게 한국에서 하고 싶은 것이 뭐냐고 물었다. 나는 하나님께 서원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물론 서원을 했다고 해서 꼭 신학을 하고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언니는 잘되었다면서 그러면 신학교를 한번 알아보자고 했다. 덕분에 모 신학교 가서 상담도 받고 서류도 제출해서 합격 공지가 났다.

학교에서 전화가 와서 합격 사실을 알리면서 나에게 알려준 사실은 등록금을 꼭 내야만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것이었다. 북한에서도 학교를 가기 위해 뇌물을 쓰기도 하긴 하지만 등록금이라는 개념은 생소해서 나는 언니한테 물었다.

“학교에서 등록금 내라는데 어떻게 하는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날 도와주던 조선족 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내가 세상 물질 모르고 불안해 보였을까 싶다. 그렇지만 그것이 보통의 탈북민들의 상식 수준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혹시 등록금을 구할 수 있는지 이곳 저곳 알아보았다. 내가 아는 곳은 하나원에서부터 들은 남북하나재단이었는데 알아보니 35살이 넘으면 대학 학자금 지원이 안된다고 했다.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언니와 나는 백방으로 돈을 구해볼 수밖에 없었다. 사실 언니는 정말 열심히 나를 생각하며 등록금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다녔지만 나는 그렇게 열심히 돈을 구하러 다니지 않았다. 너무 이곳

물정을 모르다보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지 하며 천하태평이었다. 언니는 그런 나를 보며 안절부절하며 더 열심히 기도해 주었다.

한번은 언니가 후원해주실 수 있는 목사님이 계시다고 한번 만나보라고 자리를 주선해 주었다. 목사님께서는 등록금이 어렵지 않느냐고 물어보셨는데 나는 대뜸 나도 모르게 “네, 등록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라고 말해버렸다. 목사님은 등록금이 이미 준비된 줄 아시고 “아 잘 되었네요” 하고 대화가 마무리되고 말았다. 이 이야기를 언니에게 하자 언니는 “아이고...” 하더니 곧 “그래 네가 한 말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니 이루어질줄로 믿습니다” 했다. 나와 언니는 최선은 다하지만 하나님이 등록금을 주시면 학교를 다니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알고 깨끗하게 다른 길을 찾아보기로 했다. 학교 안 다니게 되면 중국에서 하던 것처럼 같이 성경 통독하자는 이야기도 했다.

그 때 기대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한 성도님이 언니에게 갑자기 신학하는 탈북민 있느냐 문의하셨다. 언니가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언니는 깜짝 놀라서 딱 있다 근데 어떻게 아셨냐? 하고 물었다고 한다. 그러자 그 분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분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예기치 않은 일로 먼저 세상을 뜨게 되었던 것이다. 마음의 큰 아픔과 상실을 하나님 앞에서 삭히고

마음을 추스리며 기도생활을 하는 중에 마음에 ‘아들에게 쏟았던 마음을 이제 탈북민을 위해서 쏟으며 봉사하라’ 는 마음의 감동이 있으셨다고 한다. 사연을 전해 들으며 인생의 큰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오히려 타인, 그것도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북에서 온 나 같은 사람을 돕고자 하시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가늠할 수 없는 감동이 느껴져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떻게 이 고마움을 보답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개강을 2일 남겨놓고 극적으로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 학교 생활은 참 즐거웠다. 공부는 쉽지 않았지만 학생으로 앉아있는 것이 행복했다. 남한 교우분들도 처음에는 신기하게 보다가도 참 친절하게 사랑으로 대해주셨다. 특히 나이 있는 한 언니가 나를 그렇게 잘 챙겨주었다. 하루는 그 언니와 함께 길을 가다가 “아 북조선 애미 나이들이 남조선 괴뢰도당들하고 어쩔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라고 나도 모르게 언니에게 이야기했더니 언니도 “아 그 말 너무 맞는 말인데 웃긴다” 하면서 웃었다.

그 남한 신학생 언니가 하루는 나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기도하는 중에 자꾸 하나님께서 북한을 품게 하신다면서 왜 이런 마음이 생기는지 모르지만 중국을 통해 북한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싶다고 했다. 생각해보니 나도 중국 쪽이라면 가이드 할 수 있겠다 싶었지만 워낙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다. 언니는 나에게

같이 중국에 가보자고 부추겼다. 어렵사리 결심하고 언니의 도움을 받아 함께 중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가기 전엔 주저함이 있었는데 막상 중국행 비행기를 타니 꿈만 같았다. 중국에서 살 때는 해외 나가러 공항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그렇게 우려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 오다니 꿈만 같았다. 마치 성공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비행기를 타고 내린 중국의 모 도시는 내가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끼쳤던 곳이었다. 이곳에 갈 일은 잡혀갈 때 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제는 한국인으로서 당당하게 다닐 수 있으니 너무 기분이 남달랐다. 이전에는 그렇게 무서웠던 공안차에다가 지나갈 때마다 니하오를 외쳤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시민권도 주시고 대한민국 시민권도 더하여 주셨다.

중국에는 1주일 정도 돌아보았다. 꿈에 그리던 백두산도 올라가보고 내가 팔려가서 살았던 시골도 가 보았다. 버스를 타고 익숙한 길을 가는데 영화 시작할 때 늙은 사람이 젊은 시절을 회상하듯이 그간의 일이 주마등처럼 내 머리를 스쳤다. 숨어다니고, 쫓겨다니고, 공안이 아닌 일반 사람이라도 혹시 고향 물어볼까봐 말도 섞지 않고 피해다녔던 내가 나이 먹고 이렇게 당당하게 다시 왔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났다. 언니는 눈물을 훔치는 나를 보고 가만히 나를 안아주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목적은 감성 여행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눈이 향하시는 곳은 어디일까?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어디일까? 고민하며 살피는 중에 이번 여행을 함께 안내해주었던 조선족 사역자 분이 우리에게 북한 엄마를 두었지만 지금은 엄마가 없는 애들이 있다고 해서 만나보겠냐고 했다. 엄마를 잃은 아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문득 내가 북송당했을 때 함께 갇혔던, 북송된 여인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밤새 자기도 모르게 중국에 두고 온 아이 이름을 꿈에서 부르다가 깨던 그 여인들... 그리고 아침마다 그 중 몇몇은 죽어서 나가던 그 떠올리기 싫었던 참혹한 기억이 다시금 되살아났다. 그간 북한의 보위부, 집결소, 또 교화소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었을까...

그렇게 한 아이를 만났다. 외진 산골에 아이가 사는 집이 너무나 낡았다. 다 쓰러져가는 오막살이 집을 보고 있으니 저 집 무너지면 어찌할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다. 우리가 만난 아이는 나이에 비해 너무 외소했고 얼굴에 웃음이 없었다. 안아주려고 하니 오히려 뒷걸음질을 쳤다. 옆에서 조선족 사역자 분이 “아이가 어미 사랑을 받아보지를 못해서...”하며 애써 설명했다. 그 아이 엄마는 아이를 낳고 4개월만에 북송당했다고 한다. 참으로 북한 놈들이나 중국 놈들이나 지독하다. 그 아이에게 편안한 할머니로서 다가가려 했지만 아이는 머리숙여서 땅 쳐다볼 뿐이었다.



<2011년 KBS 취재파일 '호적없는 탈북자녀'에 소개된 명진이. 4살배기 명진은 2살 때 어머니가 북송당했고 중국동포인 아버지도 집을 나갔다. 북한 여성이 제 3국에서 낳은 아이들의 상당수가 어머니를 잃고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 (KBS)>

돌아오는 우리의 발걸음은 참으로 무거웠다.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비행기 타고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고 으쓱했던 것이 갑자기 부끄러워졌다. ‘아 하마터면 내가 아픔가운데 있는 이 아이들과 어미들을 잊을 뻔했구나... 내가 이 아이들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아니겠는가?’ 하는 감동이 마음을 울렸다. 언니와 함께 교회에 가서 만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언니는 “어찌 그 아이들을 나에게 보여주십니까” 하며 울부짖었고 나는 “하나님 내가 저 아이들을 잊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

한국 돌아와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지 언니와 함께 계속 기도를 이어가던 중에 중국에서 전화가 왔다. 아이들을 소개시켜주신 사역자께서 한참 땀을 드리다가 우리에게 어렵게 어느 교회나 단체 있으면 이 아이들 조금

후원해주면 어떻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아이들이 시골에서 학교도 못다니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를 다니려면 시내로 나가야 되는데 버스 차비 낼 여력조차 없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불쌍해서 울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하고 부르짖는데 갑자기 내 머리를 울리는 감동이 있었다.

“왜 네가 이 아이들을 불쌍하다고 하느냐. 이 아이들이 받는 연단은 잠깐이지만 얼마나 축복의 통로가 될 줄을 아느냐? 이 아이들은 고아가 아니다. 육안에 보기에는 불쌍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복음의 다리이다. 비록 엄마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 사랑을 너희가 전해 주어라.”

깜짝 놀랐다. 불쌍하다 안타깝다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라는 감동에 가슴이 쿵쥔거렸다. 언니한테 이런 감동받았다 했더니 그 언니도 비슷한 마음의 감동을 받으셨다고 했다. 내가 감동을 받았는데 내가 먼저 베풀고 심어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한달의 10만원 이라도 언니와 함께 지원하겠다고 언니에게 말도 하지 않고 현장 사역자분과 덜컥 약속을 해버렸다. 그렇지만 현장 사역자분은 오히려 나를 주의를 시켰다. 단기성으로 하면 애들이 오히려 힘들어지니까 혼자 그렇게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무슨

확신인지 3년을 약정을 했다.

나중에 언니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미리 알리지 않고 정한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 언니와 내가 반반씩 5만원씩 사랑의 씨앗을 심자고 했다. 그러자 언니는 “아니 네가 5만원 심는데 내가 어떻게 5만원만 심겠니? 나는 10만원 심겠다.” 라고 했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서 단체를 조직하고 지금도 꾸준히 수십여명의 아이를 돕고 있다. 다만 역량이 부족하여 파악한 아이들을 다 돕지 못하고 그 중에 약 3분의 1 정도의 아이들만 돕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아이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길 기대한다.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사역까지 결심하자 돈문제가 더욱 현실로 다가왔다. 매 학기 등록금을 구하는 것이 큰일이었다. 기도와 금식으로 날짜에 압박해서 채워지는 은혜로 몇 학기를 다녔지만 8학기를 이렇게 다니려고 하니 너무 고단했다. 결국 지원이 끊기고 등록금을 내기 어렵게 되면서 휴학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다른 신학교 다니는 탈북자 신학생들과 학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주변 다른 탈북자들은 의외로 학비 걱정을 하지 않았다. 탈북자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신학교들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남북하나재단 외에 한국장학재단 등 탈북자에게 학비 지원을

해주는 기관들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왜 진작 알지 못했을까? 학비 때문에 고생했던 순간들이 너무 아쉬웠다. 결국 나는 학비 지원이 되는 신학교로 편입을 하게 되었다.

탈북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나이는 많고 세상은 오래 산 것처럼 보이지만 남한에서의 생활은 갓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초년생과 같다. 정보도 부족하고 아는 사람도 몇 없다. 진작 이런 정보들을 알고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난다. 교회가 탈북자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고 남한 사회와 탈북자들의 실질적인 사회 생활을 도울 수 있는 장치들이 잘 마련된다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져본다. 또 신학교들도 탈북자 출신 사역자들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충분한 지원을 통해 더 많은 탈북자 출신 사역자를 배출하고 이후 통일을 준비하는데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 (계속)

✚ 美, 최룡해 등 3명 인권유린 제재..대북압박 수위높여



〈최룡해 조직지도부장(왼쪽), 정경택 국가보위상(가운데), 박광호 선전선동부장(오른쪽)이 인권유린 책임자로 지목돼 미국 대북제재 명단에 올랐다(연합뉴스)〉

북미 비핵화·제재완화 협상 교착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최룡해 부위원장과 정경택 인민보안상, 박광호 선전선동부장을 특별지정 제재대상(SDN) 목록에 올려 인권 관련 압박에 나섰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12월 10일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과 검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 부위원장 등 3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최 부위원장이 노동당과 정권, 군을 통솔하는 2인자로 활동하며, 당의 조직지도부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정경택 인민보안상은 인민보안부의 검열 활동과 이를 악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왔다는 국무부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박광호 선전선동부장도 사상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선전선동부의 일반적인 검열 기능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북미간 협상이 진척이 없는 가운데 미국 등 국제사회가 대북 선박 등 제재에 이어 인권제재 카드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의 인권 관련 대북 제재는 이번이 세 번째다. 미국 행정부는 지난 2016년 7월 처음으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2차 대북 인권제재였던 2017년 1월 제재에는 개인 7명과 기관 2곳이 추가됐다. 당시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포함된 바 있다.

✦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 방한… 미국의 유화책이 미북 회담 돌파구 될까



〈미국의 대북 실무협상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미리 준비한 글을 읽고 있다.〉

미국 대북 실무 협상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2월 19일부터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방한했다. 방한 기간 동안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는 청와대 · 외교부 · 통일부를 두루 돌며 인도적 대북 지원 시사 등 유화 메시지를 남겼고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 된 판문점을 찾기도 했다.

‘조만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는 미 정부발(發) 의지 신호 말고는 최근 북미 협상을 진전시킬 만한 별다른 계기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비건 대표가 협상 재개를 위해 내민 ‘당근’을 북한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가 향후 협상 향방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비건 대표의 대북 유인책은 ‘제재 유지’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최대한 성의를 보이는 방식이다. 19일 입국하면서부터 비건 대표는 “(미국 국민들이) 지원

물품을 전달하고 북한을 여행하는 부분에 대해 재검토할 것”이라며 대북 인도 지원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21일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 뒤에는 남북 철도 · 도로 연결 착공식이 26일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남북 간 유해 발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고, 북한 동포에 대한 타미플루 제공 문제도 해결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통일부가 “남북 간 인플루엔자 협력의 일환으로 치료제인 타미플루와 신속진단키트를 북측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사실을 감안할 때, 이 본부장의 발언은 타미플루 제공 관련 사안에 대한 대북 물자 반출을 포괄 면제하는 쪽으로 미측과 협의를 완료했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

그러나 북한이 애초 주장해온 것은 제재 대상이 아니던 대북 인도 지원의 활성화가 아니라 대북 제재 해제였다는 점에서, 비건 대표가 방한 기간 보인 성의를 북한이 선뜻 받아들일 가능성은 아직까지 물음표다. 북한은 비건 대표 방한 이틀째인 20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우리는 제재 따위가 무섭거나 아파서가 아니라 그것이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진정성을 판별하는 시금석이기 때문에 문제시하는 것”이라며 “대조선적대시 정책의 종식과 부당한 제재 해제 등 사실상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손가락 하나 까닥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비건 대표는 이튿날인 21일 “독자 및 유엔 제재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 남북, 26일 개성 판문역서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그래픽·서울신문>

남북이 오는 12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을 가진다. 대북 제재때문에 착공식을 해도 당장 공사를 시작할 수는 없지만, 연내에 착공식을 마칠겠다는 지난 9월 남북 정상 간에 합의는 일단 지키게 됐다.

남북이 12월 13일 개성 연락사무소에서 회의를 갖고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날짜를 확정했다. 비무장지대 GP 상호검증에 이어 연내 착공식까지 열리면서 군사 분야에 이어 경제 분야로까지 남북교류가 확대되는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착공식이 공사 시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철도·도로를 연결하는 작업은 대북 제재에 저촉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실제 공사 착수는 비핵화 협상 진전으로 대북제재가 풀려야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 이영진 부대변인은 12월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착공식 개최 및 대북제재 면제 등 절차와 관련해 미국·UN과도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남북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남북, 시범철수 GP 상호검증 완료…GP 완전철수도 추진



남북은 12월 12일 최근 철수 및 파괴 작업을 마친 비무장지대(DMZ) 내 시범철수 GP(감시초소)에 대한 상호 현장검증 작업을 마쳤다. '9·19 군사합의서'에 따른 남북 각각 11개 GP의 시범철수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DMZ 내 남북 GP의 완전 철수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 각각 11개 조 총 154명으로 구성된 현장검증단은 이날 남북 시범철수 GP를 연결하는 오솔길을 통해 도보로 이동해 상대방 GP의 철수 여부를 확인했다.

남측 검증단은 오전 9시께 DMZ 내 동부·중부·서부전선에 걸쳐 새로 개설된 11개 오솔길과 군사분계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북측 검증단을 만나 북측의 GP 시범철수를 검증했다.

북측 GP에 대한 검증이 끝난 뒤 북측 검증단도 오후 2시께 군사분계선 상의 11개 지점에서 남측 인원과 만나 남측의 GP 시범철수를 확인한 뒤 오후 4시 53분께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으로 복귀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북측 GP에 대한 현장검증에선 모든 화기와 장비, 병력이 철수했는지, 감시소와 총안구 등 지상 시설물이 철거됐는지, 지하 연결통로 및 입구 차단벽 등 지하시설물이 매몰·파괴됐는지 등의 상태를 확인했다"며 "오후에는 북측이 우리측과 동일한 방식으로 남측 GP에 대해 현장검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남북이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비무장지대 내에 설치된 GP를 상호 방문해 들여다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북은 앞으로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비무장화를 위한 모든 GP 철수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측은 160여개, 남측은 60여개의 GP를 DMZ 내에 설치했다. 남북은 GP 시범철수 이후 권역별 GP 철수 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모든 GP를 철수하는 방안에 이미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 대북제재로 北 선박 운항 2년 만에 30% 정도 줄어



<지난해 11월 북한 라선항에 선적을 앞둔 석탄이 쌓여있다. (VOA 자료사진)>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북한 선박의 움직임이 2년 만에 30%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도쿄 MOU)의 선박 안전검사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8년 1월부터 이달 12일 사이 중국과 러시아 항구에서 이뤄진 북한 선박에 대한 안전검사는 모두 11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같은 기간의 238건이나 2016년의 309건, 2015년의 272건과 비교해 적게는 절반, 많게는 3분의 1로 줄어든 수치이다.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는 전 세계 선박들을 무작위로 선정해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만큼 모든 선박의 입항 횟수를 다 반영하진 않지만, 안전검사를 받은 선박이 줄어들었다는 해외 항구로 운항을 한 북한 선박의 전체 숫자 역시 줄어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지표이다.

북한 선박들이 검사를 받은 항구가 중국보다 러시아가 더 많았다. 올해 북한 선박들은 중국에서 35차례 안전검사를 받았지만, 러시아에선 두 배가 훨씬 넘는 81건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81건의

러시아 검사 기록 중에는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서 이뤄진 검사가 80건으로 월등히 높았고, 나훔카 항이 1건이었다.

중국은 전체 35건 중 다이렌이 29건, 옌타이와 렌윈강이 각각 3건과 2건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북한 선박의 운항 횟수가 크게 줄어든 건 같은 기간 더욱 강화된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에는 지난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대표 석탄 항구에 북한 선박들이 드나드는 모습이 관측됐지만, 최근에는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참고: VOA, 12월 13일)

✦ 탈북자 피신 도운 중국인, 한국 망명 신청 거부당한 후 소송으로 난민 인정받아



중국에서 탈북자 500여명이 제3국으로 도피하는 것을 도운 중국인이 한국에 망명신청을 했다가 거부되자 법적 소송 끝에 승리해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최종적으로 인정받았다.

12월 19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인 투아이룽(55)에 대해 보도했다. 투아이룽은 2004년부터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체류 중이던 탈북자들의 라오스 입국을 도왔다.

장시(江西)성 출신인 투아이룽은 당시 중국과 라오스 국경에서 건축일과 함께 한약재, 야생동물 등을 밀수하며 생계를 이어왔다.

한국인 기업가라고 밝힌 사람이 자신의 친척이라며 탈북자들의 라오스 밀입국을 부탁했고, 이를 계기로 중국 내 탈북자들의 라오스행을 돕게 됐다. 탈북자 한 명당 500달러의 돈도 받았다.

투아이룽은 2006년에는 한국 내에서 탈북자 지원활동을 하던 한 목사로부터 부탁을 받고 탈북자 1명당 1천 달러를 받고 중국 내 탈북자의 태국 입국도 지원했다. 이렇게 해서 그가 라오스, 태국 등으로의 밀입국을 도운 탈북자가 5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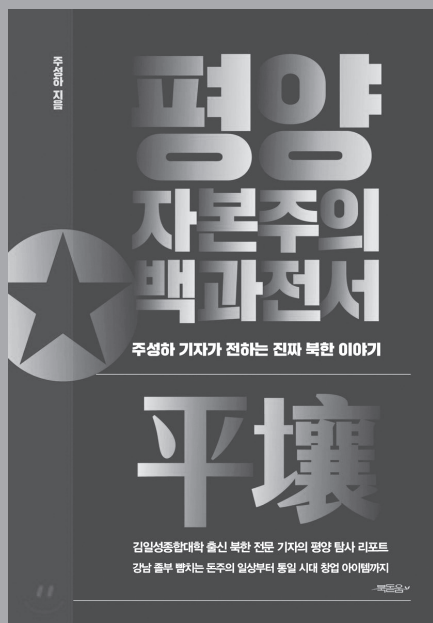
그러나 투아이룽은 2007년 4월 중국 당국에 체

포돼 한 달간, 이듬해 또다시 체포돼 6개월간의 구금 생활을 각각하기도 했다. 그는 2009년 3월 중국을 떠나 2010년 방콕의 유엔난민기구(UNHCR)에 망명신청을 했지만 거부되자 라오스에 들어가 거주하다 현지에서 라오스 여성과 결혼도 했다. 2016년 초 라오스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중국으로의 귀국을 종용하자 그는 귀국 시 체포를 우려해 제주도로 입국했고, 한국으로의 망명을 신청했다.

그러나 투아이룽은 지난 2016년 6월 난민신청이 거부됐다. WSJ에 따르면 투아이룽은 라오스에서 위험에 처해있지도 않으며, 그가 중국에서 어떤 처벌에 직면해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망명신청이 거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투아이룽은 이에 불복해 난민 불인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지난 6월 승소판결을 받았다. 소송 결과에 따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21일 중국인 투아이룽(55)에게 난민 인정서를 발급하고 체류자격 F-2(거주)를 부여했다.

투아이룽의 소송을 대리한 공익법센터 측은 투아이룽이 탈북자 지원 과정에서 돈을 받은 것과 관련, "탈북자들을 라오스나 태국으로 밀입국시키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목: 평양 자본주의 백과전서

저자: 주성하

출간일: 2018년 9월 20일

출판사: 북돋움

가격: 18,000

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달된 평양의 모습이 매스컴의 주목을 받았다. 비록 가난에 시달리는 인민들이 많지만 평양만큼은 잘 정리된 거리와 고층건물 등으로 꾸며놓은 모습은 사람들은 그간 가지고 있었던 북한에 대한 인식과는 다른, 어찌보면 충격적인 모습이었다.

그간 우리가 들어왔던 가난과 굶주림의 북한과 잘 닮인 평양 거리를 다니는 주민들 모두 북한의 일부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너무나 극과 극으로 벌어져버린 북한 사회가 우리에게 익숙치 않을 뿐이다. 그간 국경지대를 비롯한 평양 밖의 북한의 모습에 대해서 각종 수기와 증언으로 상황이 알려졌지만 평양에 대한 이야기는 미래 과학자 거리 같은 최근 조성된 건축물들이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찍어온 사진자료 등 표면적인 것이 대부분이었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는 듣기 어려웠다. 그러다보니 평양의 모습이 아무래도 낯설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주성하 기자가 쓴 ‘평양 자본주의 백과전서’는 그간 알려지지 않은 평양 주민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그런데 책 제목이 모순적이다. 자본주의를 배척하는 북한의 수도가 바로 평양이다. 그런데 평양 자본주의라니 거기에다가 백과전서라고 이야기할 만큼 책 분량도 상당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책을 읽어보면 이 제목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책에서 보여주는 북한의 중심, 평양의 변화는 눈으로 보이는 고층 빌딩과 도시 모습보다도



<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 방북 당시 카 퍼레이드에서 보이는 고층빌딩들(좌)과 워싱턴포스트가 16년 5월 '북한의 1%, 평해튼(평양+맨해튼)에서 운치 있는 삶을 즐기다'의 제목으로 보도한 영상의 한 장면(우).>

더 충격적이다. 외국산 명품을 몸에 걸치고 고급 음식을 즐기는 갑부들과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부동산 투기 열풍에 대한 내용은 북한 사회에 이미 뿌리내려진 자본주의를 실감하게 한다.

그간 궁금했던 평양 주민들의 생활 모습도 있다. 술과 접대 문화, 남녀관계와 데이트 및 여가생활, 대중교통, 한국 가요와 드라마,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평양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다르게 그 안에서는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평양 자본주의 백과전서'는 자본의 논리에 따라 돌아가기 시작한 북한의 중심 평양의 모습을 생생한 예시와 스토리로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다.

책 내용 중에는 놀라운 부분이 많았다. 막연하게 북한에 장마당 경제가 활발하게 발달하고 있다고만 알고 있었다면 이 책을 통해 경제의 변화가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구석구석 바꿔놓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가 생각보다 더 크고 놀랍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평양에 사는 북한 주민들이다. 사람들에 대한 위화감과 친근함이 동시에 느껴졌다. 비록 다른 체제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들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팍팍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어떻게든 잘 살아보고자 하는 노력은 그들과 내가 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존의 정치권력에 돈의 논리까지 섞여 너무나도 철저히 계급화된 사회, 가난과 고통 속에 있는 일반 주민들과는 동떨어진 그들만의 리그를 살아가며 강력한 통제가 존재하는 북한에서 불법과 뇌물로 자연스러운 고위층의 삶을 누리는 평해튼의 모습은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경협 등 비정치 분야에서의 협력이 논의되고 있다. 아마도 가까운 시일에 북한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남한 기업들이 상당수 생길지도 모른다. 남한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북한 사람들은 아마 이 책에서 묘사하고 있는 고위층 또는 수완있는 자본가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앞으로 북한은 어떻게 변화할까? 우리가 만날 북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다면 가깝지만 아직은 멀게만 느껴지는 북한, 그 중에서도 평양 사람들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평양 자본주의 백과전서'의 일독을 권해본다.

1. 2019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지혜와 예측을 뛰어 넘는 그분의 경륜을 보이십니다. 그 경륜이 올 한해 한반도를 이끌어가실 것을 소망합니다. 비록 우려와 걱정이 있지만 이 땅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한반도에서 그분의 능력을 보이시고 온 열방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것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안하게 한반도 전역에 전해지며 그 사랑을 깨달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일이 시작되도록 기도합니다.
2.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201년에는 북한의 비핵화가 이야기되고 국가간의 외교적인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이제 2019년에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성과를 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북미간의 의견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올해 초로 예정되어 있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양국간의 입장차를 좁히고 북핵문제 해결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관련된 각국 리더들을 비롯하여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 각국의 의사결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북핵 문제가 정치적 논리에 따라 애매모호하게 처리되는 것이 아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남한에서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은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응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통일 준비에 대한 논의도 점차 활발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북한을 위해 오랜기간 기도하고 사역해온 교회와 성도들이 있는 것과는 별개로 많은 교회들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 벅차하거나 여전히 무관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사명과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는, 복음으로 한반도를 섬기는 교회들이 세워지길 기대하며 각 개교회를 비롯한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4.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는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통일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통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통일의 일꾼을 키우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분단의 상처와 핍박의 아픔을 싸매어줄 수 있는 사랑과 회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에 충실한, 세상적 가치관이 아닌 그리스도의 가치를 성취하는 교회가 되도록 회개와 회복의 역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5. 혹독한 겨울을 견디고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한에 비해 훨씬 극심한 추위에 시달리는 북한 땅이지만 경제적 문제로 충분한 난방과 식량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한의 추위에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는 북한 주민들이 이 겨울을 잘 넘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장벽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의 온정을 나누고자 하는 노력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안전하고 유용한 사역의 문들이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6. 북한 인권 문제와 박해받는 북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외적인 화해와 대화 분위기와는 다르게 북한은 그들이 말하는 주민들의 사상이 흐트러지지 않을까 걱정하며 외부 정보 유입 차단과 내부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비롯하여 북에 납치되거나 잡혀간 탈북민 출신 사역자 및 조선족 사역자들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수만의 성도들이 심각한 인권유린 속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가 하루 속히 폐쇄되고 성도들이 자유를 얻도록,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들이 하루속히 석방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신앙을 숨기고 생활하는 복벽의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고단한 생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을 영육 간에 지원하기 위한 각종 지원과 사역이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북한이 우상숭배를 포기하고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중단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루속히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주어져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7. 선교 현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 3국에서 북한 선교를 위해 애쓰시던 선교사들에 대한 신변의 위협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된 추방과 통제에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선교를 어렵게 하는 법령과 정책이 잇달아 시행되고 선교사 뿐 아니라 현지 교회에 대한 단속과 통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악화된 현지 사정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영혼들이 복음으로 양육해줄 사역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 선교회에서도 여성 및 일반 분야에서 사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선교사들과 현지 교회가 상황적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피땀흘려 헌신하며 수고해온 사역이 계속 안전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법과 정책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어 복음의 진보를 막는 일이 중단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8. 대북 라디오 선교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 밤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철책 너머 북으로 전파를 통해 송출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전파는 국경을 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날씨나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북한 성도와 주민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더 깨끗한 음질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대북 라디오 선교 사역을 위해 국동방송, 북방선교방송 및 자체 후원라디오 사역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단체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봉사하시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19년 1월 1일

한국 오픈도어선교회 사역자 모집(전임)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고 믿음 안에 굳세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여 사역하고 있는 한국 오픈도어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북한선교에 헌신할 사역자를 구합니다.

모집인원

현장 선교사(여성 사역부분 : ○명/일반 사역부분 : ○명)

주요업무

- 현장의 필요에 따라 선교회에서 진행하는 사역 배정(개별 협의)
- 여성 부분의 경우 북한 출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복음 사역 참여

지원자격

- 교회 및 노회(지방회)의 인정을 받는 선교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분
- 교육부 인가의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M. div)를 받은 분
- 중국어 가능자 우대
- 여성사역부분의 경우 여성만 지원 가능하며 독신자 우대
-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열정이 있으며, 특히 공산권 선교에 헌신된 자
- 연령 : 45세 미만 (예외 가능)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신앙고백서 (홈페이지 양식 참조)
- 추천서 2부, 최종학력 증명서 및 관련증명서 사본 (면접 시 지참)

기관소개

- www.opendoors.or.kr 와 www.opendoors.org 사이트 참조
- 사역 조건 : 선교 파견자는 선교회에서 사역비를 지원하며 구체적 내용은 개별 협의함
- 모집기한 : 구인시까지
- 문의처 : 이제나 간사 : 010-4668-6356 / 이메일 : info@opendoors.or.kr
- 서류제출 - 이메일 : info@opendoors.or.kr
- 우 편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한국 오픈도어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